



2면

푸드테크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 육성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음 1월 11일) 제344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정읍에 집적된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를 비롯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를 방문하고 4개 연구기관과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을 가진 뒤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있다.

전북형 바이오산업 육성 보폭 맞춘다

전북자치도, 정읍시·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과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특화단지 유치 연계·바이오분야 R&D 공동 협력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바이오 산업 육성과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19일 정읍에 집적된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를 비롯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김 지사는 각 기관장 등과 협력방안

을 심도있게 논의한 데 이어 이들 4개 연구기관과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을 바이오 부분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를 목표로 역점을 두고 육성하고 있다. 바이오 산업은 국가적으로 첨단전략기술을 내세우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자치도는 올해 들어 전북특별자치

도 출범 이후 첫 투자협약으로 국내 바이오 분야 선두 앵커기업인 넥스트엔바이오와 (주)레드진,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정읍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공동 상생 연계방안을 모색하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연계 △바이오 분야 R&D 공동 협력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각 기관과의 사업 발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은 생물자원은행 보유에 대한 경험 및 기능성 바이오 소재 개발에 강점이 있고,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는 흡입

및 독성, 질병모델 개발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는 방사선을 활용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소재 개량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의 경우 미생물 자원을 기반으로 효능 및 기능 분석 및 현장 실증에 강점이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바이오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4개 연구기관들과 함께하는 연계 협력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바이오 특화단지 도전을 위한 바이오 핵심 기업 유치 및 글로벌-로컬 연구기관, 대학 등 다방면의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충 도민 생명·재산 보호 강화

전북자치도·임실군, 국토부 공모 선정... 국비 4억 확보
범죄·화재·재난 등 선제 대응... 올해 말까지 구축키로

각종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도내 스마트 도시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국토부의 '2024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 사업'에 전북자치도와 임실군이 각각 선정돼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구축, 범죄·화재·재난 등 각종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임실군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국비 4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방비 4억원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의 등 안전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도시안전망"은 도시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련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CCTV 영상정보를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함으로써 범죄나 화재, 각종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112 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119 긴급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재난상황 시 재난 현장영상 지원 등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스마트 도시안전망이 확충됨에 따라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분야 안전강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실시간 사건사고 현장의 CCTV영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한다"며, 유관기관이 함께 도시안전에 효과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할 정도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처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추천제 시행

제조업 등 산업계 인력 부족 해소·외국인 장기 정착 유도

전북자치도는 제조업 등 산업계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 장기 정착 유도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지원하는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160명의 외국인 인에게 비자 전환을 위한 추천이 가능하며, 적극적인 기업 홍보 등을 통해 조속히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이다. 도지사 추천을 받게 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위한 가점 30점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환 요건 점수 300점 만점에서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 취득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병원 전공의 사직 잇따라... "20일부터 수술 등 차질 불가피"

전문의 중심 비상진료체제 돌입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놓고 전북대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졌다. 1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전북대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오후 5시 현재). 이날 전공의 189명은 이날까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병원 측에 통보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사직서를 모두 제출한 뒤 20일부터 모든 업무를 중단할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중증과 응급 환자 위주로 비상 진료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은 전북의 397명 전공의 중 187명이 있어 전공의 전체 전공의 42.9% 달한다. 원광대병원이 126명으로 41.3%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북대병원의 전공의 잇단 사직으로 20일부터 수술 등 업무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과 전공의들이 빠져나가자. 전북대병원에는 마취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총 25명이 있다. 하지만 전공의만 14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마취과 전공의도 사직서 제출을 밝히면서 수술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